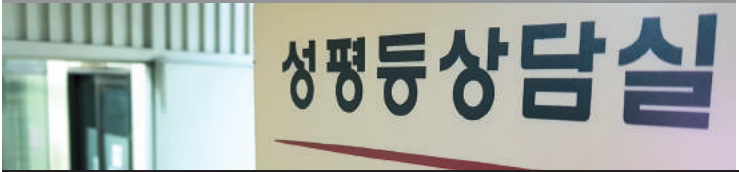


5» 성폭력 사건, 어떻게 다루지나



6» 신입 국제부총장 인터뷰



8» 우리학교 스포츠 선수 인터뷰 - 농구



‘총장선출 구성원 손으로’ 공론화 시작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교수의회는 13일 교수의회 통신문을 통해 지난 방학 동안 총장선출제 모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장선출제 연구특위’ 활동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교수의회는 “방학 동안 전 대인 15대 교수의회에서 법인 이사회에 제출했던 총장선출제 모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총장선출제 개선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밝혔다.

교수의회가 밝힌 개선안은 지난 2016년 대학평의위원회가 공동제안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교수의회 측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의회가 제안한 모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하여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거친 후 ▲구성원의 직·간접 투표로 총장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2014년 11월에 개최된 대학평의위원회에서도 총장선출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결정돼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2014년 제15대 총장선출 당시에는 개선안을 내지 못했지만 이후 2016년 특별위원회는 총장선출방식 모델을 법인에 제출했다.

특별위원회가 당시 법인에 제출한 총장선출제 모델은 총추위가 총장후보 3~5인을 추천하고, 구성원 투표로 총장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추위는 교수 14명, 직원 4명, 대학(원)생 4명, 동문 4명, 이사회 추천 4명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투표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참여하는 직선제로, 학생과 동문은 대

표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단, 학생과 동문은 각각 300인 이내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며, 학생과 동문의 선거인단 구성은 학생회 및 동문회에서 결정한다.

교수의회는 이번 통신문에서 “총추위 구성, 평가단 구성 비율, 구성원 투표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한다”며 “3월 말 교수의회 전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중순 열릴 대학평의원에서 제도에 대한 의결과 이후 정책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김중현 위원장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성원 참여의 폭을 넓히는 총장선출제여야 한다”며 “구성원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수의회가 제안한 총장선출제의 의미에 공감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지부 또한 “총장 선출을 할 때 구성원 의견이 반영됐던 적은 한번도 없다”며 “총장선출제도에 대해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델이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더라도 총장 선출과 관련된 기존 제도와 절차상,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정관을 바꿔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2016년 연구특위에서 고안한 총장선출제 모델을 법인에 제출했지만, 이사회 안건이 아닌 단지 ‘보고 사항’으로 올라갔다.

2017학년도 제6차 평의위원회는 법인과 총장실 관계자를 소환해 총장선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법인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만 중점을 두고 있다”, 총장실은 “총장께 보고 드려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 바 있다.

인상된 학식, 국제캠 학생 여론은 ‘싸늘’ 외부업체의 ‘일방적 결정 이유’

《학생식당 메뉴별 가격 및 인상률》				
학생식당	메뉴	변경 전 가격(원)	변경 후 가격(원)	인상률(%)
공과대학관	조식	2,200	3,000	36.3
	한식	2,800	3,500	25
	양식	3,200	4,000	25
	특식	4,000	4,000	-
	라면	2,000	3,000	50
	즉석떡볶이	5,000	7,000	40
학생회관	조식	2,500	3,000	20
	한식	2,800	3,500	25
	일품	3,000	4,000	33.3
	양식	3,200	4,000	25
	라면	2,000	2,500	25
	즉석떡볶이	5,000	7,000	40
우정원/제2기숙사	한식	3,200 (할인가 2,900)	3,500	9.3 (20.6)
	일품	3,700 (할인가 3,400)	4,000	8.1 (17.6)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지난 2일, 국제캠퍼스(국제캠) 공과대학, 학생회관, 우정원, 제2기숙사에 위치한 4개 식당의 식단가가 일제히 인상됐다. 학생회관과 공과대학은 2,800원이었던 한식이 3,500원으로, 3,200원이었던 양식이 4,000원으로 올랐다. 5,0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즉식 떡볶이는 7,000원에 판매 중이다.

생활관인 우정원과 제2기숙사 또한 기숙사생들에게 입사 전 기존 금액보다 3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식권을 대량 구매하게 했던 선택필수식권 구매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가 2,900원이었던 한식 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했다. 메뉴별로 적게는 300원부터 많게는 2,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개강을 하고 나서야 학식 가격이 오른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거세게 불만을 제기했다. 기숙사에 거주하며 생활관 식당을 이용하는 A씨는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실망했다”며 “가격이 올라도 식사의 질이

향상된다면 괜찮지만, 현재 학식은 냉동식품이 자주 나오는 등 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한다는 B씨도 “다른 학교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양과 질이 떨어지는지 궁금하다”며 “학생의 동의도 없이 가격을 올리는 학생식당에서는 이제 사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국제캠에서 학식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부터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학식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에브리타임에는 서울캠 학식과 국제캠 학식을 비교하는 ‘학식 리뷰 게시판’이 생기도 했다. 서울캠 학생들은 국제캠 학식을 보며 ‘군대에서 먹는 밥 같다’, ‘어떻게 이게 3500원이냐’는 댓글을 남기도 했다. 반면 많은 국제캠 학생들은 ‘같은 가격에 양도 많고 메뉴도 다양한 서울캠 학식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4면으로 이어짐



학기 중 새 단장 준비하는 정경대

개강 전에 마무리돼야 했던 정경대학교 문과대학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단과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관리팀 관계자는 “문과대학은 3월 말 그리고 정경대학은 4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사진=박예령 기자)

서울캠 5월까지 비대위 체제, 불안한 학생 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면서, 5월 재선거가 시행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5월까지 총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 학생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만약 5월 재선거에서도 총학생회가 꾸려지지 않을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정기 선거까지 자리를 메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장은 총동아리연합

회 이희완(사회학 2014) 비대위장이다.

서울캠 총학생회 후보 등록기간인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어 자연스레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양 캠퍼스 총여학생회, 서울캠 문과대학, 국제캠퍼스(국제캠) 동아리연합회 또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됐다. 문과대학은 서울캠 단과대학 중 유일하게 선거가 무산됐다. 이들은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문과대학 비대위 김지현(영어통번역학 2015) 위원장은 “총장 선거

와 같은 굵직한 문제부터 일부 단과대의 공간 부족 문제까지 총학생회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총학생회가 없어 비대위가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본부 또한 비대위는 총학생회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의과대학은 후보자 등록기간을 20일까지로 6일 연장했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국제캠 국제대학과 체육대학, 서울캠 자율전공학과는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된다. 국제캠 국제대학과 체육대학의 투표 기간은 20일-21

일 양일 간 진행되며, 자율전공학과와 의과대학은 한의과대학과 동일하다.

한편,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해 11월 단선으로 치러졌으나 찬성표 미달로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캠 총여학생회의 경우 경고 누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해 선거를 치르지 못했으며, 총여학생회·문과대학·자율전공학과·한의과대학 학생회와 국제대학 학생회는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체육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가 과반의 반대표를 받아 낙선해 재선거를 시행했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한반도가 전해줄 평화의 메시지
김민웅(교육대학원) 교수 >> 7면

